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요 약

-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는 교육기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교육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에 누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 도농 간에 교육격차가 엄존하여, 읍면지역이 특히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간에도 저학력·저소득층과 고학력·고소득층 간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다.
- 한국사회의 계층 간 교육격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큰 편이며, 특히 부모의 고등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그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의 해소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문에서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육격차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화되면서 교육이 '상승이동의 사다리'에서 '계층고착화의 핵심기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김경근, 2005).

물론 교육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수용해야 할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가정배경과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에 기인한 격차는 합리화되기 어려운 사회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교육격차에 많은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격차는 교육기회, 교육여건 및 과정, 그리고

교육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같은 단계별 접근을 통해 교육격차의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횡단적 관찰과 더불어, 종단적 관점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교육격차 실태를 좀 더 깊이 있게 조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해보도록 하겠다.

교육기회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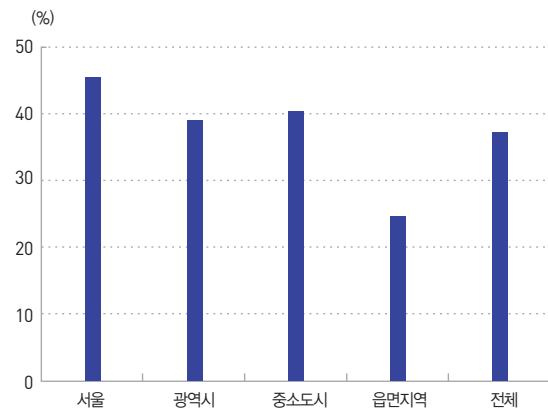
교육기회의 차이는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III-14]에는 우리 국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교육기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교육기회 충족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는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다.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서울에서 45.5%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40.4%, 광역시 39.0%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읍면지역은 24.6%로 여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도시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취학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고학력자들이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현상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기회의 격차는 학교교육보다 취학전 보육·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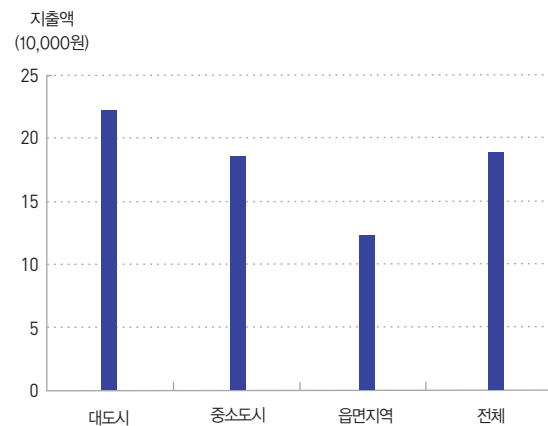
[그림 III-14] 지역별 교육기회 충족도¹⁾: 2008



주: 1)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8.

육과 사교육에서 더 분명하게 표출된다. [그림 III-15]에 제시된 취학전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월평균 지출 비용은 이 같은 현실을 잘 드러내 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에서는 취학전 아동 1인당 보육·교육비가 평균적으로 약 22만 2천 원 지출되었고, 중소도시에서는 그보다 낮은 18만 6천 원이 지출되었다. 이에 비해 읍면지역은 12만 2천 원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지출이 상당히 적었다.

[그림 III-15] 지역별 취학전 아동 보육·교육비 지출액: 2009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2009.

이러한 결과는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는 고학력·고소득층이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보육·교육서비스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이들 지역에서 참여율이 더 높고 단가도 더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술한 결과는 취학전 단계에서부터 도농 간에 양적·질적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기회의 격차는 사교육을 중심으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 및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각각 [그림 Ⅲ-16]과 [그림 Ⅲ-17]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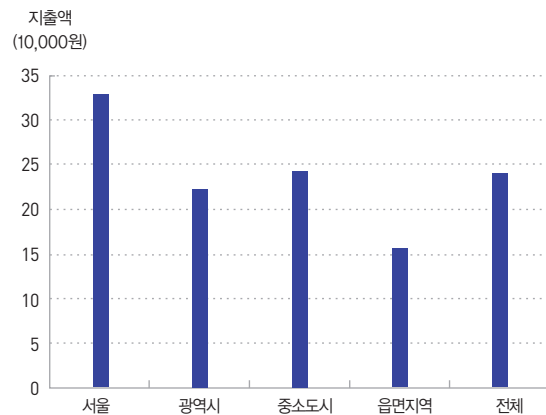
먼저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24만 2천 원의 사교육비가 지출된 가운데 서울이 33만 1천 원으로 가장 높은 지출 수준을 보여주었고, 중소도시 24만 5천 원, 광역시 22만 5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읍면지역은 15만 6천 원으로 가장 낮은 지출 수준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사교육이 덜 발달한 읍면지역에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2010)이 발표한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79.6%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76.0%, 광역시 74.6%, 읍면지역 67.3%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기회의 격차에는 지역보다 소득계층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7]에 제시된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액은 가정의 소득수준과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간에 정비례 관계가 존재함을 잘 보여준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10만 6천 원으로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월소득 5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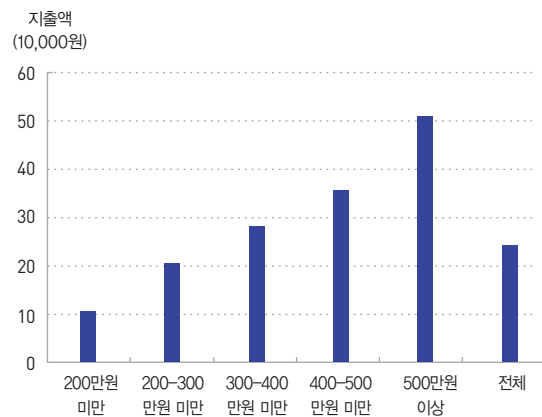
원 이상 고소득층 가정에서는 평균 50만 7천 원을 지출하여 평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6]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액: 2009



출처: 통계청,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10.

[그림 Ⅲ-17]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액: 2009



출처: 통계청,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10.

이 같은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비교적 저렴한 사교육을 받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더 높고 지불능력의 우위를 토대로 양질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을 잘 방증해 준다.

학교생활 및 가정 내 교육적 지원의 격차

교육기회에서 비롯된 격차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교나 가정에서 경험하는 지원의 차이를 통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업참여도와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을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지원의 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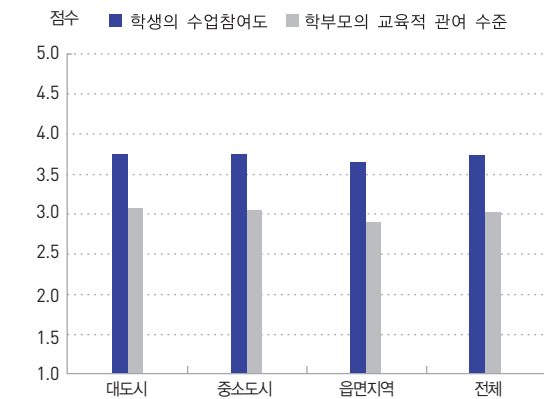
[그림 Ⅲ-18]와 [그림 Ⅲ-19]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별 및 소득수준별 수업참여도와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학생의 수업참여도는 수업시간에 산만한 행위를 보이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5점 척도로 측정된 4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은 자녀 교육을 위해 집안에 공부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성적을 관리하고, 과외나 학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일정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행동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이 변수 역시 5점 척도로 측정된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이 같은 내용의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Ⅲ-18]에 제시된 지역 간 교육격차와 관련한 학생의 수업참여도와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도 지표는 모두 도농 간에 눈에 띄는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업참여도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모두 5점 만점에 3.74점인 반면, 읍면지역은 3.64점으로 다소 낮은 수업참여도를 보였다.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에서도 유사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5점 만점에 각각 3.08점 및 3.05점의 관여 수준이 나타난 반면, 읍면지역은 2.91점에 그쳤다. 이처럼 읍면지역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이 주로 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더불어 가정 내 교육적 지원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18] 지역별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도¹⁾ 및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²⁾: 2009



주: 1) 학생이 학교수업에 집중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 4개 문항의 응답 평균값임.

2)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행동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측정한 것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 5개 문항의 응답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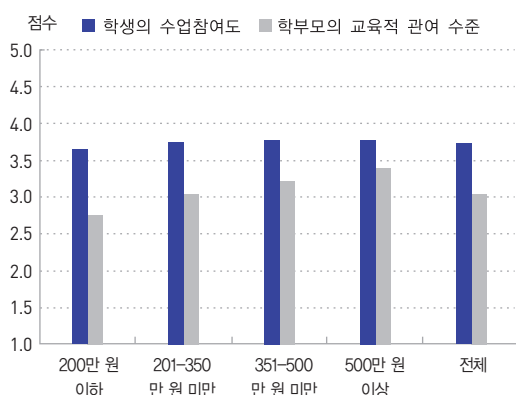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중단연구」, 2009.

[그림 Ⅲ-19]에는 동일한 지표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학생의 수업참여도의 경우 월소득이 201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모두 3.75점을 넘는 참여 수준을 보인 반면,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에는 3.65점으로 상대적으로 수업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적 지원의 격차는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에서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집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 수준은 2.76점에 그친 반면, 201~350만 원 집

단은 3.03점, 351~500만 원 집단은 3.22점,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집단은 3.41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부모가 자녀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Ⅲ-19] 소득수준별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도¹⁾ 및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²⁾: 2009



주: 1) 학생이 학교수업에 집중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 4개 문항의 응답 평균값임.

2)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행동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측정한 것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 5개 문항의 응답 평균값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09.

교육결과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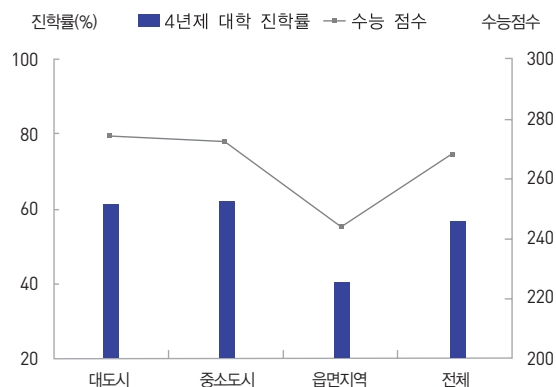
교육기회에서 시작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심화된 교육격차는 교육결과의 국면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교육결과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얻어지는 수학능력시험 성적과 4년제 대학 진학률을 준거지표로 삼아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 관찰에서 비교 기준으로 삼은 2005학년도 수능성적은 언어·수리·외국어 3개 영역의 표준점수의 합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표준점수는 평균 100, 표준편

차 20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Ⅲ-20]에는 지역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도농 간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수능점수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평균 274.4점 및 272.7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읍면지역은 244.0점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능성적에서의 지역 간 격차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의 차이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도시지역은 60%를 웃도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보인 반면, 읍면지역의 진학률은 40.9%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Ⅲ-20] 지역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 2004~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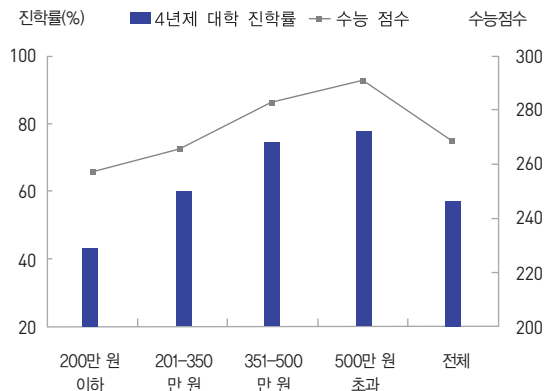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2004~2008.

[그림 Ⅲ-21]은 소득수준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가정의 소득수준은 교육결과의 격차와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능성적의 경우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평균 257.6점을 획득한 반면, 201~350만 원 집단은 266.2점, 351~500만 원 집단은 283.2점, 그리고 500만 원 초

과 고소득층 집단은 291.1점을 얻어, 수능성적이 소득수준과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III-21] 소득수준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 2004-2008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2004-2008.

이 같은 계층 간 교육격차는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여기에서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여타 집단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성과를 보인 점에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월소득 201-350만 원 집단 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60%를 웃돌고, 351-500만 원 및 500만 원 초과 집단은 각각 74.5%, 77.8%로 70%를 크게 상회하는 반면,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집단은 진학률이 43.1%에 그치고 있다. 상술한 결과는 학교교육을 받으면서 누적된 계층 간 교육격차가 교육결과 단계에서 한결 심화된 양상으로 표출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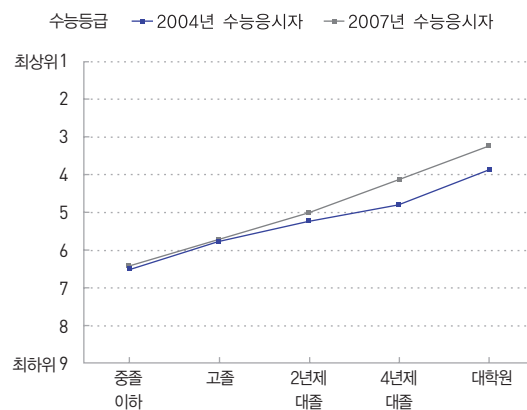
계층 간 교육격차의 추이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앞서 논의한 횡단적 비교와 더불어, 종단적 관점에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부모의 학력 및 소득수준 등 계층적 요인에 따라 최근에 교육격차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그 추이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 제시된 결과는 2004년과 2007년의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두 코호트 간 비교를 위해 수능시험 등급을 준거지표로 삼았다. 수능등급은 상위 4%에 해당하는 1등급(최상위권)부터 하위 4%에 해당하는 9등급(최하위권)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되었다.

먼저 부모학력별 교육격차 추이가 정리된 [그림 III-22]를 살펴보면, 2004년 코호트에 비해 2007년 코호트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격차가 좀 더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두 코호트 간 차이는 부모의 고등교육 이수 여부를 경계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 및 고졸인 경우에는 두 코호트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2년제 대졸 및 4년제 대졸의 경우에는 2004년 코호트에 비해 2007년 코호트에서 학력에 따른 수능등급의 차이가 한층 커진다.

[그림 III-22] 부모학력별 자녀의 수능등급: 2004,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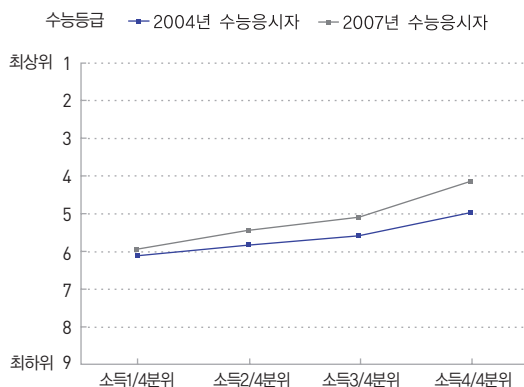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각년도.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의 추이에 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즉 전반적으로 2004년 코호트에 비해 2007년 코호트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수능등급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3). 특히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4/4분위 집단과 여타 집단 간의 차별화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분명해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2004년 코호트에서는 소득 3/4분위 학생에 비해 소득 4/4분위 학생들이 0.63등급 더 좋은 성적을 획득한 반면, 2007년 코호트의 경우에는 전자보다 후자가 0.94등급 더 좋은 성적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Ⅲ-23] 소득수준별 수능등급: 2004,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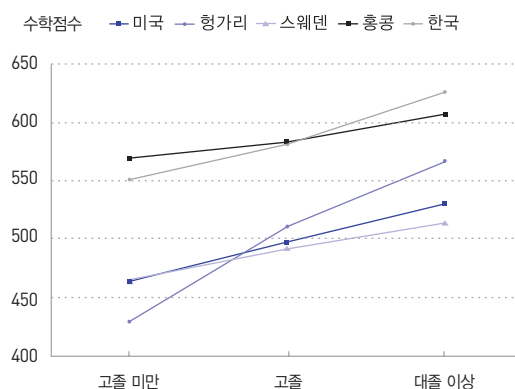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각 년도.

교육격차의 국제비교

한국사회의 교육격차가 어떤 수준이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파악하려면, 여타 국가들과 실상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TIMSS(Trends

for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2007의 수학성적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학력별 학업성취 격차를 국제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Ⅲ-24]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Ⅲ-24]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부모학력별 교육격차: 2007



출처: IEA, TIMSS, 2007.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국가 중에서는 헝가리가 부모의 학력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헝가리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과 고졸 미만인 집단 간에 무려 약 137.3점의 격차가 존재했다. 이보다는 양호하지만 한국도 미국, 스웨덴, 홍콩에 비해서는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성취도 차이가 훨씬 더 심각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과 고졸 미만인 집단 간 학업성취 격차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 66.7점, 스웨덴 49.1점, 홍콩은 38.6점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74.2점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집단과 대졸 이상인 집단 간에 격차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부모가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여부가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경계 지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는 그간 교육을 통해 비교적 활발한 사회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인식되었던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상승이동이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현상들을 두루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제반 단계에 걸쳐 소외계층에게 각별한 관

심과 배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좀 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망된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을 유념하여 소외계층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김경근(고려대학교)